

肉滯 驗方

羅 應 潔
(혜화당 한약방)



一切 肉滯

肉滯로 胃中에 塊가 매달려 있어 消化劑나 中脘 施針도 不效時

● 加味養胃湯 또는 平胃散

加味 山查肉 神曲 檳榔 枳實 便香附子 向日子(해바라기) 五靈脂
五倍子한다

● 三味丸

五倍子 向日子 五靈脂 爲末 綠豆大作丸 大人 25~30丸式 服用한다.

三味丸料는 肉滯한 塊物을 消化시키는 特效藥이다 貼藥과 丸藥을 兼用하면 短時日에 效果를 볼 수 있으며 湯劑한가지로는 效가 느리다

肉滯한지 2~3日이면 2貼으로 效가 있고 50年 苦生한 患者는 3劑程度면 完治된다 發病 初期에는 속이 느글느글하면서 吐하기도 하지만 좀더 進行되면 속이 몽클하면서 消化가 안 되나 食慾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.

(1) 肉滯診斷法

한 손으로 心下를 누르고 또 한 손으로 正反對便인 背部를 두드려 보면 명치부와 등이 같이 痛症이 오는 것으로 알 수 있다

방약합편에 보면 鳳仙子가 肉滯를 解消한다고 되어 있어서 施用하여 보니 좋은 反應이 있었으나 求之不得이라 代用으로 向日子を 쓰게 되었는데 意外로 效果가 좋았고 이에 五倍子와 五靈脂를 合하여 使用하게 되었다

69년부터 지금까지 使用하고 있는데 참 좋은 처방이라 생각되어 紹介하는 것이다

(2) 治例 명치가 매달리고 食後에 쓰리는 증상이 10年이 넘었지만 아무 약으로도 效를 보지 못했다. 食後에는 속이 팍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30分에서 한 시간쯤 지나면 명치

■ 驗 方

정반대의 척추에 통증이 온다. 이에 湯劑와 丸劑를 兼用하였더니 나왔다

(3) 參考 . 服藥한지 4~5日쯤 되었을 때 속이 울렁울렁하면 그대로 藥液을 넘기지 말고 속이 편안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면 그 뒤로는 편안해 지는 경우가 많다 繼續하면 滯塊가 없어지며 그대로 낫는다.

服藥初期에는 吐할 것 같은 副作用이 오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中止하지 말고 繼續 더 많은 量으로 쓰게 되면 낫게 될 것이다 或 太陰 少陰人은 浮氣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이다.

小兒 滯氣에는 오래 되지 안했으면 몇 개의 丸藥을 물에 개어 먹이면 게트림을 하게 되고 10분 후면 그대로 좋아진다

• 煎湯法 藥 10貼에 水 큰 대접으로 10대접을 붓고 20~30分 다리면 끓기 시작하니 이때 熱을 100도 以下로 4時間정도 다려서 삼베 형겅으로 짤 필요없이 그대로 소쿠리 등에 걸러 놓고 10등분하여 服用하면 된다

再湯시는 水 3대접을 붓고 전과 같은 방법으로 다려 5등분하여 복용한다. 복용중 속이 답답하거나 설사 두통 등이 오면 回數를 줄이던지 量을 주린다

(충북 제천시 명동 T 47-3912)